

#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홍보모델로 배우 이준혁, 아나운서 박선영 위촉

- 신뢰도와 대중성을 갖춘 홍보모델을 통해 경제총조사 인지도 제고  
및 조사 참여 독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4월 1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홍보모델 위촉식」을 열고 배우 이준혁, 아나운서 박선영을 홍보모델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모델 선정은 올 6월 실시되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지방선거와 북중미 월드컵 등 대규모 행사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하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높은 신뢰도와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모델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배우 이준혁의 그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구축한 대중적 신뢰도와 아나운서 박선영의 국가데이터처 총조사 모델로서의 경험이 경제총조사의 대국민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홍보모델로 위촉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앞으로 국가데이터처는 두 모델과 함께 경제총조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여, 사업체의 자발적인 조사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이다. 2011년 이후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되는 조사로 국내 사업체의 산업별 규모·고용·생산·비용 등을 조사해 산업 및 지역별 경제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기술 도입 등으로 변화된 신산업 구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통계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금년 경제총조사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조사를 먼저 진행하며,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본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30일간 진행되는 온라인조사는 PC와 모바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응답 부담 감소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 이준혁과 아나운서 박선영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총조사 홍보 모델로 위촉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계기로 경제총조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힘을 보태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홍보 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라고 다짐하였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홍보모델로서 두 분의 활발한 활동은 경제총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업체의 조사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더불어, “증거기반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고품질의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응답이 중요한 만큼,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혜련 (042-481-3770)
		담당자	사무관	이봉주 (042-481-3774)





-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2025년 기준 홍보모델 위촉식'에서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배우 이준혁, 아나운서 박선영이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2025년 기준 홍보모델 위촉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